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형 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저음 유학을 갔더니 영어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비속어를 도통 모르는 탓이라 지레짐작하고 공부를 하려고 이 분야의 강지라는 에디 머피의 스탠딩 코미디 비디오를 빌려다 여러 번 들었다. 인종 비하에서 여성 비하까지, 난무하는 온갖 금기어는 심악한 정년예전 가히 문화적 충격이었다.

이런 발칙한 비디오를 파는 나라에서, 소수 인종의 대학 입학 비율을 정한 ‘입학 쿼터제’가 비하적 표현이라며 난리다니 긍정행동(affirmative action) 정책이라는 난해한 표현으로 정리되는 건 또 뭘지. 풍자와 해학의 표현 자유는 존중하지만, 공격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엄정

가벼움의 미학

한 잣대를 고수하는 건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항상 지금 같진 않았다. 매카시즘의 출현이 한고비였는데, 1950년부터 6년간 지속한 2차 적색공포 시기에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J. McCarthy)에 의해 주도됐다. 정치인뿐 아니라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연예인 다수도 핏박받았고, 과학자도 광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파괴성을 절감하고 반전 평화운동에 나선턴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가 그랬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로 원자폭탄을 탄생시킨 오펜하이머는 1954년에 한 달 동안 상원 청문회에 불려가 고초를 겪었다.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첸넌(錢學森)은 매카시즘의 감시와 통제를 못 견디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탓에, 매카시즘이 중국에 보낸 최대의 선물이라고 한다.

저명한 수학자 스테판 스메일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며 반전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덕분에 한때는 미국을 피해서 브라질의 순수응용수학연구소(IMPA)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1966년 모스크바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필

즈상 강연을 하면서는 소련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바람에 구금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까지 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솔제니친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아내는 수학자였다. 스탈린을 비난하는 개인 서신이 문제가 돼서 11년간 투옥과 유배 생활을 했다. 이 경험을 쓴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으니 스탈린이 문학에 보낸 최대의 선물이라나.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한국인 수학자 이립학 교수는 반독재 활동 탓으로 수십 년간 고국 방문이 불가능했다.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유일한 수학자가 됐으니 상전벽해다.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지금 수준의 ‘표현의 자유’에 다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엔 문화적으로 후퇴의 조짐도 있다. 많은 이들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을 못 견뎌 하고 풍자와 해학에 관대하지 않다. 지역 비하, 직업 비하, 여성 비하, 남성 비하라는 다양한 이유로 공격 영역과 사적 영역에 무차별적이다. 풍자를 근본으로 하는 개교 프로그램에도 분노

한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말하면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생결단을 내려고 한다.

얼마 전 대학 강의에서 4대강 찬성 주장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청중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논쟁과 공론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부족할까? 미국에서도 반전 활동으로 고초를 겪은 오펜하이머의 대척점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다른 멤버인 폰 노이만이 있었다.

수백만의 유대인이 죽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그는 평화 유지와 전쟁 억지를 위해 수소 폭탄 개발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았다. 수학과 컴퓨터 개발의 천재적 재능으로 핵분열과 핵융합 모두를 무기로 구현했으니, 반전주의자들에게 불가사의한 존재였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정의의 개념조차도 상대적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공포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좀 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가. 유머러스함은 소중한 가치 아니던가. 엄중한 시절이지만, 그럴수록 조금 가벼워지면 어떨까. 관공과 너그러운의 회복을 기다린다.

社 說

최순실 모녀 숨긴 재산 8000억 원대라는데

최순실(60) 씨와 딸 정유라(20) 씨 등이 독일에 8000억 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 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최 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스포츠·건설업·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 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을 독일 검찰과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검찰은 또한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 씨 모녀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독일 검찰은 나아가 최 씨 일당이 자금 세탁과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 법원으로부터 정유라 씨

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 팀은 이를 근거로 독일에 사법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 팀은 독일 측에 수사 기록과 최 씨 일당 10여 명의 차명 의심 계좌 거래 내역 및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과정 및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 80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은 경악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최 씨는 유지원장 정도를 제외하곤 특별한 경력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재산의 형성 과정 전반이 불법 행위로 점철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떠도는 소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재산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제 특검 팀의 할 일이 또 하나 늘었다. 독일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의 불법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내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에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다 알지만 이제야 드러나는 5·18 집단 발포

계엄군이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광주시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무려 130여 발에 달하는 총탄 흔적이 발견됐다.

탄흔이 발견된 곳은 출입문 위에 ‘영상 데이터베이스(DB) 사업부’라고 적혀 있던 10층 사무실(현 광주YMCA 방향)로 주로 창문 쪽 기둥과 바닥 및 천장 부근에 집중돼 있었다. 국조사 측은 당시 금남로에 유사한 높이의 건물 이 없었다는 점에서 헬기 난사의 흔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일빌딩은 당시 군부의 잔혹한 진압을 피해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이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은 36년 동안 가려져 있던 광주항쟁의 퍼즐을 맞추는 역사적 증거다. 1980년 5·18 직후 군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의 항공 관련 부분 기록에 따르면 시

위 진압 헬기가 무장을 했고 탄약을 다량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으나 명확한 ‘물증’이 없어 지금까지 부인돼 왔기 때문이다.

무더기 총탄 흔적 발견은 군 관계자들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국회 광주청문회 등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든 데다 시민들이 장갑차마저 탈취해 장병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발포가 이뤄진 것”이라며 “계획된 명령에 따른 집단 발포는 아니다”고 잡아땀다.

광주는 앞으로 제시될 국고수 감정서를 주목하고 있다. 감정서에 헬기 기총소사 내지 헬기 사격이 공식적으로 담긴다면 광주항쟁 진실을 추적하는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0년 5월 21일 낮 집단 발포가 단순 진압이 아닌 ‘계획된 학살’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발포 명령자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006년 ‘아들과 딸’(Sons and Daughters)이라는 직원 특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중국 고위 관료와 공기업 고위층들이 이른바 ‘일류 직장’인 JP모건에 자녀를 취직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자 이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다.

목표는 ‘중국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특혜 확보’였다. 당연히 선발 기준은 부모가 지닌 권력의 크기였고, 면접은 ‘구색 맞추기’로만 진행됐다. JP모건이 이런 과정을 거쳐 선발한 직원이 아

는 것은 우리에게도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쫄북 혁명’을 불러일으킨 최순실 사건을 살펴보면 ‘금수저 운운’은 사실 논란의 몸통이 아닌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근래 최고의 ‘금수저’로 떠오른 ‘정유라’ 개인을 위해 재벌 기업 상속이 수십,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

은 코미디다. 삼성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특혜’였고, 그 수단으로 택한 것이 정유라-

최순실을 통한 ‘최고 권력에 졸 대가’였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문제는 ‘금수저와 졸 대가’가 기승을 부리기 위해선 ‘권력의 부패’라는 명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기업의 졸 대가가 먹혀들지도,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문고리 5인방’이나 철모르는 금수저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안을 이끌어 낸 ‘쫄북 혁명’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종교칼럼



조방기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교회는 주님의 오심 즉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 가운데 오신다. 그는 인간의 비참함을 어루만지시고 인간답지 못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는 남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되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다(루카 4장 18절). 나아가 당신의 첫 가르침인 산상설교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오 5장 3절)”로 시작한다. 하느님나라는 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일까? 아마도 지상은 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는 힘을 갖지 못하고 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아직 지상에서 실현되지 않은 하느님나라는 그들의 것

기 고



마재운
광주소방안전본부장

“해가 뜨면 일하고(日出而作), 해가 지면 쉬고(日入而息), 우물 파서 마시고(鑿井而飲), 밭을 갈아 먹으니(耕田而食),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帝力于我何有哉)”라는 내용의 요순시대 격양가(擊壤歌)는 그 당시 국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살고 있었는지 잘 말해준다.

현대사회는 요순시대만큼 단순하지는 않지만, 안전의 영역에 있어서라면 격양가의 내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안전관리의 시금석으로 삼을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매일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광주는 안전 영역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더불어 안전한 광주’

격양가의 교훈을 잘 실천하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평가해 국민안전처가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는 전년대비 안전지수 개선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화재 분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낮아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8개 시·도 중 최고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가리는 ‘119구급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9개 분야 평가항목 중 7개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2013년에 1339에서 소방으로 이관돼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와 병원간 전원안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급상황관리 분야에서도 심정지환자 인지를 등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수재난분야의 119항공구조구급대는 ‘전국 시·도 소방항공대 안전점검 평가’에서 항공대 운항편성 및 비행 절차적자 보유 현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5개 시·도 소방항공대 중 최우수 항공구조구급대로 인정받게 됐다.

소방의 업무를 분류하자면 크게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구급상황관리·특수재난 등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

운데 광주소방은 화재·구급·구급상황관리·특수재난 등 4가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골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출발동시’라는 4자성어가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출’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타’이라 하며, 안과 밖에서 서로 ‘동시’에 온힘을 다해 노력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이 원동력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안전에 대한 성숙한 광주의 시민의식과 이에 보답하기 위한 광주소방의 노력이 결합하여 이렇게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광주시민들이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일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 전 통시각 등 취약현장을 점검하고 대형화재 ‘제로화’를 목표로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하고,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 화재가 발생해서 즉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쌀

과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서민을 위한 따뜻한 소방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골목타임 내에 신속히 출동하여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 능력과 특수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소방의 이런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및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올해 1월에 광주는 세계에서도 365번째, 국내에서 11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광주를 안전한 도시로 인정한 것이다.

광주시의 시정구호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다. 시민 모두를 존중하면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시정철학이 반영된 구호이다.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광주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우리 광주소방은 2017년에도 격양가의 교훈을 온 힘으로 실천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